



“원당사지 석탑 탐라에 현령 파견 12세기 조성”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연계
국립제주박물관 학술대회
“자복사로 비보사탑설 연관”

불교조각 연계 돌하르방 기원
“돌궐 석인상 영향 대정현 설치”

제주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불탑이 고려시대 탐라에 현령이 파견된 12세기에 조성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진정환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립제주박물관의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연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정환 학예실장은 이날 ‘제주 지역 불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 발표에서 보물로 지정된 원당사지 오층석탑(불탑사 오층석탑)과 수정사



제주 원당사지 오층석탑(불탑사 오층석탑).

사진=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지 청석탑이 탐라가 고려의 내지가 된 12세기에 조성됐고 불탑과 함께 사찰이 창건되었을 것으로 봤다. 특히 고려시대 탐라현의 읍치로 추정되는 목관아지에서 두 사찰까지의 직선거리가 거의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당사와 수정사는 탐라현의 자복사(資福寺)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복사는 지세를 보완하

기 위해 절, 불상, 탑, 당간 등을 조성한다는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과 관련해 그 위치를 정했다.

그는 “현령 파견 이후 빈번했던 탐라 원주민들의 반란에 대해 고려 왕실과 관리들은 한라산의 과도한 지세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당봉 안에 있던 구당사의

주둔지를 사찰로 바꾸고 불탑을 세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정사도 원당사 입지 선정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성권 단국대 사학과 교수가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학설이 나오는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를 불교조각과의 관계 속에 살폈다. 정 교수는 “제주도 돌하르방은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을 받아 김차크 칸국 출신의 몽골인들이 바람 부는 제주도 언덕에 조성한 4기의 대정현성 석상이 그 기원으로 이후 정적현성 돌하르방이 만들어졌다. 15세기 성문 앞에 석인상을 세우는 유행은 제주읍성에 영향을 주어 복신미륵을 건립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라시아 대륙에 기원을 두고 있는 돌하르방은 제주도 자체의 독자성이 잘 드러나는 문화교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고승옥의 ‘밭과 소’.

제주4·3과 일본 대지진의 기억 잇다

일 아오모리현립미술관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전
고승옥 작가 등 4인 초대

시각예술에 담은 제주4·3의 이야기가 일본에 머물고 있다. 제주 고승옥 작가가 초대된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기념 일본 아오모리현립미술관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는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하고 있는 대참사의 교훈과 기억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달 9일 막이 오른 전시로 2022년 1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참여 작가는 현대미술의 최전선에 서 활동하고 있는 고승옥, 일본의 대표적 사진가인 키타지마 케이조,

오키나와 출신 야마시로 치카코, 하치노헤 태생의 토시마 시게유키(작고) 등 4명이다. 이들은 사진, 영상, 설치 등으로 망각과 어두운 기억 속에서 ‘작은 목소리’의 ‘증거’를 수집하며 재난을 이겨내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춘다.

고승옥 작가는 2012년 귀향 후 4·3의 기억에 대한 시적인 사진과 영상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에도 4·3을 다룬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드로잉, 사진 등을 출품했다. 특히 고 작가의 영상 작업 ‘밭과 소’는 제주와 일본 대지진의 기억을 잇는 다.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인 서귀포시 안덕면 무등이왓에 조를 경작해 전통주를 빚으려는 동광리 사람들의 활동과 일본 대지진 후 피폭된 소를 살처분하지 않고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했다.

진선희기자

제주학연구센터 공간 확보 성사되나

교육·회의 외부 시설 빌려
자료 열람 서비스 등 불가
제주문학의 집 입주 등 검토

설립 10주년을 맞은 제주학연구센터. 이번에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주도와 제주학센터가 제주시 건입동 제주문학의 집 등을 놓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장 ‘제주학진흥원’ 설립 추진에 앞서 당장 연구·사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제주도민들이 제주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개원 초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연구원 한편에 사무실을 뒀던 제주학센터는 2017년 2월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 3층에 입주했고 이후 매년 임대 계약을 연장하며 지금에 이르르고 있다. 하지만 연구 공간과

사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제주학 자료를 비치할 곳이 부족해 그동안 별도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점이 언급됐다. 이날 김순자 제주학센터장은 “1년에 100회 정도는 외부 공간을 임차해 회의와 교육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이에 오영희 의원은 “도민들이 직접 제주학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행정과 협의해 오픈 자료실이 마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제주학센터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전에 맞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입주를 검토했으나 운영비(임대료) 부담 탓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제주문학의 집 이전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제주문학의 집(2~3층)은 입주 단체인 제주문인협회, 제주작가회의가 연내 이사하는 등 제주문학관 개관으로 공간이 비게 된다. 도문화정책과 측은 “제주학센터 공간이 비좁아 적당한 장소를 모색하고 있다”며 “12월 중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한라산·바다·숲 ‘새벽’이 깨우는 풍경

제주 출신 강승희 회화전
이달 17일까지 서울 노화랑

그의 작업엔 언제나 새벽이 있다. 새벽은 막 깨어나는 순간이면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다. 밤과 낮 사이 존재하는 새벽에 작가

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추계 예술대 관화과 교수인 제주 출신 강승희 작가가 다시 ‘새벽’을 불러냈다. 서울 노화랑에서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개인전을 통해서다.

일찍이 ‘새벽’ 시리즈의 동판화 작업으로 이름을 알린 강 작가는 근래

유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판화 도구를 이용한 그의 작업은 점을 찍거나 때로는 몽개면서 특유의 질감과 색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가는 평면이면서도 수도 없이 중첩된 화면 안에서 거친 듯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물의 경계를 지우고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덩어리처럼 바다, 한라산, 오름, 나무, 숲 등이 희부연게 드러나는 새벽을 그렸다.

고충환 평론가는 ‘강승희의 회화

-새벽, 세상의 모든 경계가 지워지는, 혹은 열리는’이란 평문에서 “아득한, 가 없는, 막막한, 깊은 풍경”을 보여주는 ‘새벽’ 연작에 대해 “미처 시간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부재하는 시간”인 그림 속 새벽의 의미를 읽으며 “새벽에 대한 작가의 경험치가 그저 감각적 경험의 경계를 넘어 존재론적인 층위로까지 그 의식의 추구가 가닿았을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sunny@ihalla.com

문화가 쏘지

땃돌섬광 조성 기념행사

‘자산어보’ 상영과 대담회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가 2021 문화거점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함덕 지역민과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조성한 마을쉼터 ‘땃돌섬광’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북촌 돌하르방미술관 전시공간 돌집에서는 ‘땃돌섬광 프로젝트 기록전’을 이어간다. 전시 기간인 21일 오후 2시에는 땃돌섬광(제주시 조천읍 함덕 16길 19)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함덕의 김영철 심방과 제주 무용수 고춘식 등이 참여해 국과 춤 마당을 펼친다. 문의 784-6600.

비아아트와 한뼘책방이 2021 문화거점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인 ‘제주예찬’이 이달 20일 오후 2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3층에서 영화 상영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영화로부터 역사, 역사로부터 일상’을 주제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 영화 상영에 이어 대담회가 마련된다. 대담회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의 고희영 감독, 무비스트 박꽃 기자가 게스트로 참여하고 문경주 노애도 편집장이 진행을 맡는다. 문의 010-8249-7446.

2021 꽃자왈 공유화 기금 기탁 릴레이 캠페인(11.1 ~ 30) 2주차 참여자

“고맙습니다, 꽃자왈 동반자님!”

2021 꽃자왈 공유화 릴레이 캠페인

삶이 아름다운
꽃자왈 동반자
"도민 속으로"



2021. 11. 1 ~ 30



▲QR코드 스캔
캠페인 사이트 접속

꽃자왈 유산 매니저

고 경 희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 기 원
(꽃자왈공유화재단 꽃자왈연구소장)

고 명 희
(꽃자왈생태체험관 생태해설사)

곽 경 부
(내내로전자출판 대표)

김 관 원
(김관원치과의원 원장)

박 순 미
(까리따스유치원 원장수녀)

서 상 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송 관 필
(꽃자왈공유화재단 상임이사)

오 훈 식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회장)

이 경 빈
(제주은행 부행장)

이 규 봉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정 다 남
(술을 사랑하는 연동 주민)

꽃자왈 유산 동반자 (2주차 : 132명)

강군협(아라동), 강민정(이도동), 강상일(노형동), 강석현(아라동), 강영석(이도동), 강용숙(강정동), 강윤경(중문동), 강재선(삼도동), 강지윤(일도동), 강지훈(화성시), 강창민(연 동), 강창용(조천읍), 강태훈(아라동), 강해심(호근동), 고경임(안덕면), 고광범(용담동), 고기원(이도동), 고병출(이도동), 고진혜(이도동), 고창성(이도동), 곽경부(이도동), 권영애(양평동), 김강산(이도동), 김경덕(이도동), 김경유(서귀포), 김관원(서귀포), 김규남(신호동), 김 근(노형동), 김동환(용담동), 김명춘(외도동), 김미정(용담동), 김미진(봉개동), 김민범(노남동), 김민정(일도동), 김성화(노형동), 김수남(강정동), 김수범(연 동), 김승현(일도동), 김영선(이도동), 김예슬(서귀포), 김용석(애월읍), 김용택(일도동), 김윤홍(한림읍), 김은주(삼양동), 김은진(서귀포), 김인섭(통동동), 김정은(영평동), 김종신(노형동), 김지영(강정동), 김지현(일도동), 김진승(이도동), 김진영(이도동), 김충남(아라동), 김한동(아라동), 김해정(통동동), 김현주(노남동), 김현진(아라동), 임순자(아라동), 문성필(연 동), 문중혁(이도동), 박상배(노남동), 박순미(아라동), 박원배(아라동), 박정현(노형동), 박현옥(아라동), 백운길(강정동), 백준상(노남동), 변윤경(이도동), 변정심(연 동), 변형중(노형동), 부경민(아라동), 서상기(연 동), 손상훈(아라동), 송방혁(오라동), 송용석(오라동), 신영민(용담동), 안태영(아라동), 양문희(연 동), 양영수(연 동), 양윤숙(이도동), 양인자(삼양동), 양정숙(연 동), 양주용(대정읍), 오미애(토평동), 오병돈(삼도동), 오선미(아라동), 오신미(아라동), 오창성(이호동), 오현지(이도동), 오홍식(오라동), 유승철(아산시), 유경섭(안덕면), 윤성필(노형동), 윤정애(노형동), 이정빈(화북동), 이규봉(용담동), 이명희(연 동), 이민선(용담동), 이민정(삼도동), 이성권(화북동), 이성진(조천읍), 이승훈(대정읍), 이영희(용담동), 이목자(상호동), 이은희(애월읍), 이지희(오라동), 임성규(견일동), 임성아(월평동), 임수균(화북동), 임은정(삼도동), 임이슬(연 동), 정기수(노형동), 정숙순(안덕면), 정준호(아라동), 정찬식(이도동), 조미경(용담동), 차민선(노남동), 채수경(군포시), 최윤호(아라동), 한영남(용담동), 현법석(연 동), 현용제(일도동), 홍성민(성산읍), 홍숙자(대정읍), 홍연희(용담동), 홍진표(노형동), 황보동준(연 동), 황현덕(통동동)

□ 기탁 및 단체 _ 제주까리따스유치원(아라동), 효돈성당(신호동), Ktcs루키어린이집(이도동)

(참여하신 분들의 성함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문 의

· 꽃자왈공유화재단 사무국
☎ 064-783-6047 / 784-6047

■ 꽃자왈 유산 매니저 : 꽃자왈 공유화 기금을 기탁하는 ‘꽃자왈 유산 동반자’를 5명 이상 모셔오는 캠페인 모금 활동가

■ 꽃자왈 유산 동반자 : 꽃자왈 공유화 기금을 기탁하는 사람 (정기 기탁: 월 5,000원 이상(1년 또는 1년 이상), 일시 기탁: 50,000원 이상)

| 주 최 | 꽃자왈공유화재단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협

제주대학교
제주국립대학육성사업단

Loajena 자연의 원료를 담은
화장품 브랜드